

ONSIDE

KOREA FOOTBALL ASSOCIATION TECHNICAL REPORT

www.kfa.or.kr

2021

09

VOL 88

THE INTERVIEW

‘압도적 피지컬,
장기는 치달’
고유나를 주목하라



KFA



“렛츠~ 플레이!!!”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초등 동호인 클럽부 경기가 창녕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제천에서 열렸던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여학생 축구교실 대회다. KFA는 지난 2011년부터 엘리트 선수가 아닌 여학생들이 전국 곳곳 지역 축구클럽에서 축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여학생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철곡군여학생축구교실 선수들이 경기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1년 7월 31일 창녕스포츠파크 인조 6구장 / 제20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초등 동호인 클럽 고학년부/ 철곡군여학생축구교실 vs 완주군여학생축구교실

이 코너는 KFA 임원진이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를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이야기라도 진심이 담긴 한 마디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9월 호에는 올해 초 새롭게 부임한 이영표 부회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글 오명철 사진 FAphotos



“축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KFA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표입니다.

처음 부회장직을 제안 받고서 고민했습니다. 아직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많은 제가 KFA에 과연 도움이 될까를 자문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언론을 통해 이야기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축구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몽규 회장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선진 축구 문화와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보면 축구가 스포츠 산업을 넘어 과학, 경제학, 철학과 인문학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축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지도자 밑에서 좋은 축구를 배우고, 좋은 축구를 배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플레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축구의 본질과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구 선진국 유럽처럼 축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 축구 선진국에서는 프로 B팀의 하부리그 참가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뮌헨, 스페인의 레알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등 명문 팀들은 B팀을 운영하며 젊은 선수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원FC는 현재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B팀을 운영해 K4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K3·4리그에 참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1, 2학년 때 프로에 오는 선수들은 나름대로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지만 당장 1군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일어납니다. 강원 FC는 B팀의 K4리그 참가를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선수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한 가지 부담은 재정인데 강원FC는 도민구단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 15경기를 5경기씩 묶어 3개의 도시에서 분산 개최했고, 3개의 도시에서 각각 1억5천만 원씩의 개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총 4억5천만 원의 추가 수입으로 커다란 추가 비용 없이 B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팀들이 K4리그에 참가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 터전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KFA 부회장으로서, 또한 강원FC 대표이사로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FA 부회장 **이영표**



0805 월드컵 최종예선 레바논전 홈·원정 경기 일정 맞아줘... 9월 국내에서 두 경기

당초 9월 7일 원정 경기로 열릴 예정이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레바논전 홈 경기로, 내년 1월 27일 국내에서 치르기로 했던 경기가 레바논 원정 경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남자 국가대표팀은 9월 2일 이라크, 7일 레바논과의 최종예선 1, 2차전을 모두 국내에서 치르게 됐다. KFA는 국내 1월 날씨를 고려해 지난 7월 레바논축구협회에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AFC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0811 2021 하나은행 FA CUP 4강 진출팀 확정

2021 하나은행 FA CUP 4강전은 울산현대와 전남드래곤즈, 강원FC와 대구FC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울산은 대회 8강전에서 윤일록과 김지현의 골에 힘입어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을 2-0으로 이겼다. 전남은 사무엘의 결승골을 잘 지켜 K리그 포항스틸러스에 1-0 승리를 거뒀다. 강원은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김대원의 멀티골로 2-0으로 이겼고, 대구는 K리그2 김천상무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4강에 합류했다.



0816 이봉길 한국OB축구회 회장 별세

한국OB축구회 이봉길 회장이 1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故 이봉길 회장은 서울 동북고와 방첩대, 금성방직, 경희대, 제일모직, 서울은행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다. 1971년 선수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동북고, 춘천고, 동국대 감독을 역임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한국프로 축구연맹의 경기위원장과 상벌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축구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OB축구회 회장에 당선돼 축구인들의 복지에 앞장서 왔다.



0813 전주영생고, 고등리그 왕중왕전 첫 우승

전주영생고(전북현대 U-18)가 13일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1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6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전반 엄승민의 멀티골과 후반 박창우, 김창훈의 골까지 더해 경기매탄고(수원삼성 U-18)에 4-1 완승을 거두고 창단 후 첫 왕중왕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주영생고는 2019년 대한축구협회장배 우승, 2020년 대통령배 우승 등 매년 정상 자리에 오르고 있다.



0813 울산현대가, 여자선수권 우승... 이번 시즌 첫 정상

울산현대가 13일 창녕스포츠파크 제5구장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전 고등부 결승전에서 장진영의 멀티골에 힘입어 강원화천정산고에 3-1 승리, 이번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다. 울산현대가 김예은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한편 초등부는 인천가림초, 중등부는 울산현대청운중, 대학부는 세종고려대, 일반부는 인천현대제철이 우승을 차지했다.



0819 여자 국가대표팀, 10월 미국과 원정 친선 2연전

한국이 여자축구 세계 최강 미국과 10월 22일과 27일 친선 2연전을 펼친다. 킥오프는 두 경기 모두 오전 9시(한국시간)다. 22일 열리는 1차전은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칠드런스머시파크에서, 27일 2차전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알리안츠필드에서 치러진다.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1위로, 그동안 여자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각각 네 번씩 우승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맞붙어 3무 10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CONTENTS

- 6 SKILL**
스로인, 이것만은 기억하자
- 10 ISSUE**
선수들이 오해하는 경기 규칙은?
- 14 TACTICAL ANALYSIS**
철저했던 제주의 준비, 전술 변화로 대응한 수원FC
- 16 THE INTERVIEW**
'압도적 피지컬, 장기는 치달' 울산과학대 고유나를 주목하라
- 20 Team 'HER'story**
대구동구멋진축구단,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 24 FOOTBALL TREND**
'한국형' 홈그라운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26 LEADERSHIP**
피지컬 코치,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30 Q&A**
미하엘 뮐러 강사에게 물어보세요.
- 31 FOOTBALL TRIVIA**
양말이 닳도록

ON-SIDE
2021 SEPTEMBER VOL. 88

발행인 정몽규
편집 및 인쇄 (주)스토리하우스
발행처 KFA 대한축구협회 02-2002-0707

2021년 9월호 표지 모델 고유나(울산과학대) 사진 광동혁

ON-SIDE 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바른 위치라는 의미로 오프사이드의 반대말입니다. KFA와 한국 축구도 반칙 없이 바른 위치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활약하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구 기술 향상과 정보 제공, 선진 축구 문화 형성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KSPPO 의 재정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스로인, 이것만은 기억하자

프로 선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기술에 감탄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손승준 KFA 전임지도자와 함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2021년 5월 9일 K리그 경기에서 롱 스로인을 시도하는 수원삼성 김태환

지난 8월 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 성남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25라운드 경기를 돌아보자. 후반 11분 수원의 스로인 상황에서 김태환이 페널티에어리어 중앙을 향해 길게 공을 던졌다. 문전에 있던 니콜라오는 바운드된 공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차 넣으며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니콜라오는 시즌 첫 골을 넣었고, 김태환은 스로인으로 도움을 기록했다.

Who 김태환

When 후반 11분 0-1 상황

Where 오른쪽 터치라인

What 롱 스로인

Why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될 때 활용하는 전술을 세트플레이 또는 세트피스라고 한다. 보통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세트피스가 이뤄지는데, 스로인 상황 역시 세트피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 중요도가 높다. 스로인은 코너킥과 마찬가지로 오프사이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다 다양한 공격 전술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구단 리버풀FC도 2018년 스로인 전문 코치를 영입할 정도로 스로인 전술에 공을 들였으니, 스로인 전술의 중요성은 결코 허투루 볼 수 없다.

스로인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공격 전술 중 대표적인 네 가지를 소개하자면, 두 명의 선수가 스윙플레이어를 하며 공을 받는 전술, 맨투맨으로 서 있다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며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간으로 공을 주는 전술,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연기와 속임수를 통해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트릭 전술, 그리고 확실한 무기가 되는 롱 스로인 전술이 있다.

과거 롱 스로인으로 유명했던 영국 선수 로리 델랍은 한 시즌에 스로인으로만 다섯 개의 도움을 기록할 만큼 위협적인 스로인을 자랑했다. 40m 이상 뻗어가는 롱 스로인은 그의 확실한 장기이자 소속팀 스토크 시티FC(2006~2013)의 확실한 무기였다. 킥 스페셜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팀이 스로인 스페셜리스트를 보유한다면 전술적 활용 가치가 배가된다. 이 장면을 이끌어낸 김태환이 수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비해야할 위협적인 루트가 추가되는 셈이니 심리적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How

스로인은 경기를 재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유독 간단한 규칙이 적용된다. 때문에 아마추어 경기에서 자주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로인의 기본적인 자세와 규칙부터 알아보자.

- 스로인을 하는 선수는 반드시 필드를 바라보고 서야 한다. 몸과 시선이 필드를 향해야 한다.
- 두 발은 모두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하며, 터치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
- 두 손으로 공을 잡아 머리 뒤에서부터 머리 위를 지나도록 던져야 한다.



Throw-in

TIP 01

좋은 스로인의 요소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상대 수비가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준비한 전술대로) 스로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이 동료 선수의 무릎 밑으로 가도록 던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빠른 리턴 패스 또는 전환 패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자주 나오는 실수



시선이 공을 던지는 방향을 향하지 않는 스로인은 반칙이다.



무릎을 굽히는 것은 괜찮지만 무릎을 땅에 대고 스로인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발은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면에 붙어있어야 한다. 한 발을 떼며 던지면 반칙이다.



터치라인을 밟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한 발 또는 발의 일부라도 터치라인을 넘어가면 반칙이다.



TIP 02

롱 스로인은 도움달기를 통한 스피드와 허리 반동을 통한 힘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어깨와 허리를 비롯한 상체 근육을 꾸준히 다져야 한다. 간혹 반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덤블링에 이은 스로인을 시도하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숙련자가 아니라면 경기 중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선수들이 오해하는 경기 규칙은?



지도자와 선수들은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해서 자주 항의를 한다. 때로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우리 팀의 사기를 위해 항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규칙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ONSIDE가 올해 여름 아마추어 전국대회 현장을 참관한 KFA 심판위원들로부터 선수, 지도자들이 오해하거나 항의가 많은 경기 규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재구성했다.

상황 1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항상 오프사이드는 아니다

공격팀 선수가 패스한 공을 수비팀 선수가 걷어냈다. 그런데 이 공이 잘못 맞아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공격팀 선수에게 갔다. 심판은 이를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수비팀 감독이 항의를 한다. “공격팀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니 오프사이드 아닌가요?”

관련 규칙 : 제11조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상대 선수로부터 볼을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플레이된 볼이라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쟁점

오프사이드는 ‘간섭’, ‘방해’, ‘이득’이라는 3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팀 동료에 의해 패스 또는 터치된 볼을 플레이 또는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할 때, 상대 선수를 ‘방해’했을 때,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오프사이드가 된다. 위 상황은 수비팀 선수가 걷어내는 상황이 의도된 플레이나 아니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만약 수비팀 선수의 행위가 의도된 플레이가 아니라 단순히 맞고 튀어나온 상황(굴절)이라면 이는 공격팀 선수가 이득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다. 그러나 수비팀 선수의 행위가 의도된 플레이라면 공격팀 선수가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위 상황에서 수비팀 선수의 행위는 제3자가 봤을 때도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걷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하지만 단순 굴절인지, 의도된 플레이인지를 가리기 애매한 상황도 종종 나온다. 이럴 때는 공과 선수의 거리, 신체의 컨트롤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상황 2 : PA 지역에서는 자나깨나 핸드볼 조심

B팀 선수는 A팀 선수가 페널티에어리어(PA)에서 슈팅한 공이 자신의 팔에 맞아 핸드볼이 선언될까봐 팔을 뒤로 하는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며 수비했다. 그런데 B팀 지도자가 해당 선수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꾸짖는다. 결국 다음 공격 상황에서 A팀 선수가 슈팅한 공이 B팀 선수의 팔에 맞아 핸드볼이 선언됐다. B팀 지도자가 항의한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맞은 것인데 왜 핸드볼인가요?"

관련 규칙 : 제12조 파울과 불법 행위

핸드볼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반칙이다 :

- 손/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볼을 터치할 경우. 예를 들어 **볼을 향해 손/팔을 움직이는 등**
- 손/팔이 볼을 터치했을 때, 그 손/팔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경우

선수가 부자연스럽게 그 신체를 확대하였다 함은, 그 손/팔의 위치가 특정 상황에서 해당 선수의 동작으로 정당화할 수 없거나, 혹은 그 동작과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상황에서 손/팔이 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선수는 손/팔에 볼이 맞아 처벌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상대팀 골문에 득점했을 경우
 - 득점을 했다면, 비록 우연일지라도 반칙이며, 이는 골키퍼도 포함한다.
 - 선수의 손/팔에 볼이 터치된 이후, 비록 우연일지라도 즉각적으로 득점했을 경우

쟁점

축구에서 핸드볼과 관련된 판정은 자주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손/팔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항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축구 규칙을 제정하는 IFAB(국제축구평의회)의 2021년 개정을 통해서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고 단순화했다. 선수의 손/팔 위치를 선수의 특정 플레이 상황에서 몸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판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선수의 동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손/팔의 위치가 타당한가를 판정하게 하였다.

또한 득점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격팀 선수의 핸드볼의 경우, 우연히 손/팔에 맞고 상대의 골에 직접 득점하거나 즉각적으로 득점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핸드볼로 처벌된다. 하지만 득점 전에 있었던 '팀 동료'의 우연한 핸드볼과 '득점 기회'로 연결된 우연한 핸드볼은 반칙 항목에서 제외됐다.

상황 3 : 볼을 건드린 태클인데 왜 파울?

공격팀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팀 선수가 공격팀 선수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태클을 시도한다. 수비팀 선수는 태클로 공을 먼저 터치하긴 했지만 이후 공격팀 선수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다. 수비팀 감독이 항의를 한다. "볼을 먼저 건드렸는데 왜 파울인가요?"

관련 규칙 : 제12조 파울과 불법 행위

① 직접 프리킥

선수가 주심의 견해로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칙을 범했다면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중간 생략)

만약 접촉을 동반한 반칙이 범해졌을 때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처벌된다.

- **조심성 없이**는 도전을 할 때 주의력 또는 배려가 부족하거나 경계심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징계 처벌은 필요 없다.
- **무모하게**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위험, 또는 그 위험의 결과를 무시한 채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선수에게는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는 선수가 필요한 힘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 또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해당 선수에게는 퇴장 조치를 해야 한다.

쟁점

파울 및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볼을 건드리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특히 지도자들 중에는 "볼을 먼저 터치했는데 왜 반칙을 선언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심판이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울을 선언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볼

을 먼저 건드리면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파울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경기 규칙에는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반칙을 범하면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게 돼 있다. 특히 위 상황처럼 무모한 백태클을 시도해 위험의 결과를 무시하면 경고가 주어지도록 했다. 상대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퇴장을 준다.

상황 4 : 공격수는 프리킥 수비벽을 가리면 안된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팀 선수들이 직접 슈팅을 막기 위해 수비벽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공격팀 선수들이 수비벽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수비벽 근처에 선다. 심판은 공격팀 선수들이 수비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도록 한 뒤 플레이를 실시한다. 그런데 수비팀 감독이 항의를 한다. "아니, 공격수들이 수비벽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 규칙 : 제13조 프리킥

③ 반칙과 처벌

프리킥을 할 때 3명 이상의 수비팀 선수들이 형성한 '벽'으로부터 공격팀 선수가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쟁점

현대축구에서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팀 선수들이 수비벽을 허물기 위해 벽 사이에 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과도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플레이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자 IFAB는 2019년 위와 같은 규칙을 신설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이 규칙을 오해하는 지도자가 종종 있다. 이 규칙은 어디까지나 경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격팀 선수가 수비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만 있다면 수비벽의 시야를 막기 위해 벽 앞에 서 있는 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프리킥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수비팀 선수가 벽 아래로 통과하는 공을 막기 위해 드러누워있는 행위를 제재하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상으로 명확한 지침은 없기 때문에 심판의 재량과 견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팀의 전술이라면 굳이 막아야 할 근거는 없다. 아마추어 전국대회에서는 아직 위와 같은 사례는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프로 경기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심판들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상황 5 : 심판 맞은 그 공, 왜 드롭볼인가요?

공격팀 선수가 패스한 공을 수비팀 선수가 걷어냈다. 이 공이 심판을 맞고 공격팀 선수에게로 가자 심판이 드롭볼을 선언했다. 공격팀 감독이 항의한다. "볼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드롭볼을 선언하나요?"

관련 규칙 : 제9조 볼의 인&아웃 오브 플레이

①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볼이 다음의 경우일 때 아웃 오브 플레이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에서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 플레이가 주심에 의해 중단되었을 때
- **볼이 심판들을 맞고, 필드 안에 있는 상태에서 :**
 -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하거나
 - **볼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 **볼의 소유 팀이 바뀌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플레이는 **드롭볼로 재개한다.**


② 볼의 인플레이

볼이 심판들에게 터치되거나 골포스트, 골 크로스바, 코너 플래그 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온 뒤 필드 안에 볼이 남아있는 경우를 포함해 다른 모든 경우는 인플레이이다.

쟁점

볼이 심판에게 맞은 뒤 어느 한 팀이 유리하게 경기 흐름이 바뀐다면 드롭볼을 선언하는 내용은 2019년 신설됐다. 볼이 심판에게 맞은 뒤 볼의 소유가 바뀌거나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한다면 심판이 경기에 불필요한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규칙이다.

위 상황에서 지도자는 수비수의 플레이를 우연에 의한 플레이, 단순 굴절로 생각해 볼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판은 수비수의 플레이 이후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여 드롭볼을 선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판에 맞고 직접 골이 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상황은 바로 인식하지만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

위 상황의 경우, 드롭볼로 결정해야 하는 사유로는 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과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K리그1에서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벌이는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라스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운 수원FC의 1-0 승리로 끝났다. 많은 골이 터진 경기는 아니었지만, 양팀 감독의 지략대결은 흥미로웠다.

준비에 비해 세밀함이 부족했던 제주

수원FC는 상위권 도약을 위해, 제주는 하위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이 느껴졌다. 특히 올해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한 제주가 이를 악물고 준비한 것 같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제주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지만 세부적인 모습은 전형적인 3-4-3과 달랐다. 제주는 공격 전개 시 비대칭적인 운영을 택했다. 왼쪽 윙백 정우재가 높은 위치로 전진하고 같은 쪽의 윙 포워드 진성욱은 중앙으로 이동해 실질적인 원톱 역할을 맡았다. 주민규는 한 칸 물러서서 10번 자리(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프리를 형태로 공격에 임했다.

속도와 파괴력이 있는 진성욱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주민규의 위치 이동으로 미드필드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려는 의도가 보였다. 여기에 정우재의 기동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준비에 비해 세밀함이 떨어졌다. 특히 측면에서 공격 전개 시 크로스로 연결하는 부분전술이 부족했다. 후반에는 조성준과 제르소 같은 빠른 선수들의 개인 능력 위주의 전형적인 3-4-3 형태로 돌아왔다.

더 강한 전방압박을 수행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실점 이후 선수들이 심리적으로도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2선과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수원FC가 편하게 공을 소유하고 시간을 보내게 됐다.

전술 변화가 돋보인 수원, '임팀'이기에 가능

수원FC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술 변화로 상대 흐름을 잘 끊어 냈다. 전술 변화의 키 플레이어는 김건웅이었다. 김건웅은 원래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인 선수지만 이번 시즌 주로 센터백으로 기용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도 김건웅의 위치는 3백 수비의 가운데였다.

수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전 경기들과 비교해 3백의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이다. 김오규를 가운데 배치하고 홍준호를 선발로 기용했는데 수원FC의 라스-무릴로 조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는 강한 전방압박이었다. 수원FC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면 5-1-3-1 같은 형태로 서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공 중심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가했다. 중앙 지역을 두텁게 막으면서 공을 측면으로 몰아 상대 실수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두 가지 모두 전반전에는 효과가 있었다. 김오규가 역할을 잘 해주어 라스를 묶는데 성공했고 수원FC는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제주가 강한 전방압박으로 빌드업을 방해하자 김건웅은 빌드업 상황에서 한 칸 전진했다. 김건웅의 전진으로 미드필드 진영에서 상대의 마크를 받지 않는 선수가 생기면서 빌드업이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후반 중반부터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경기 초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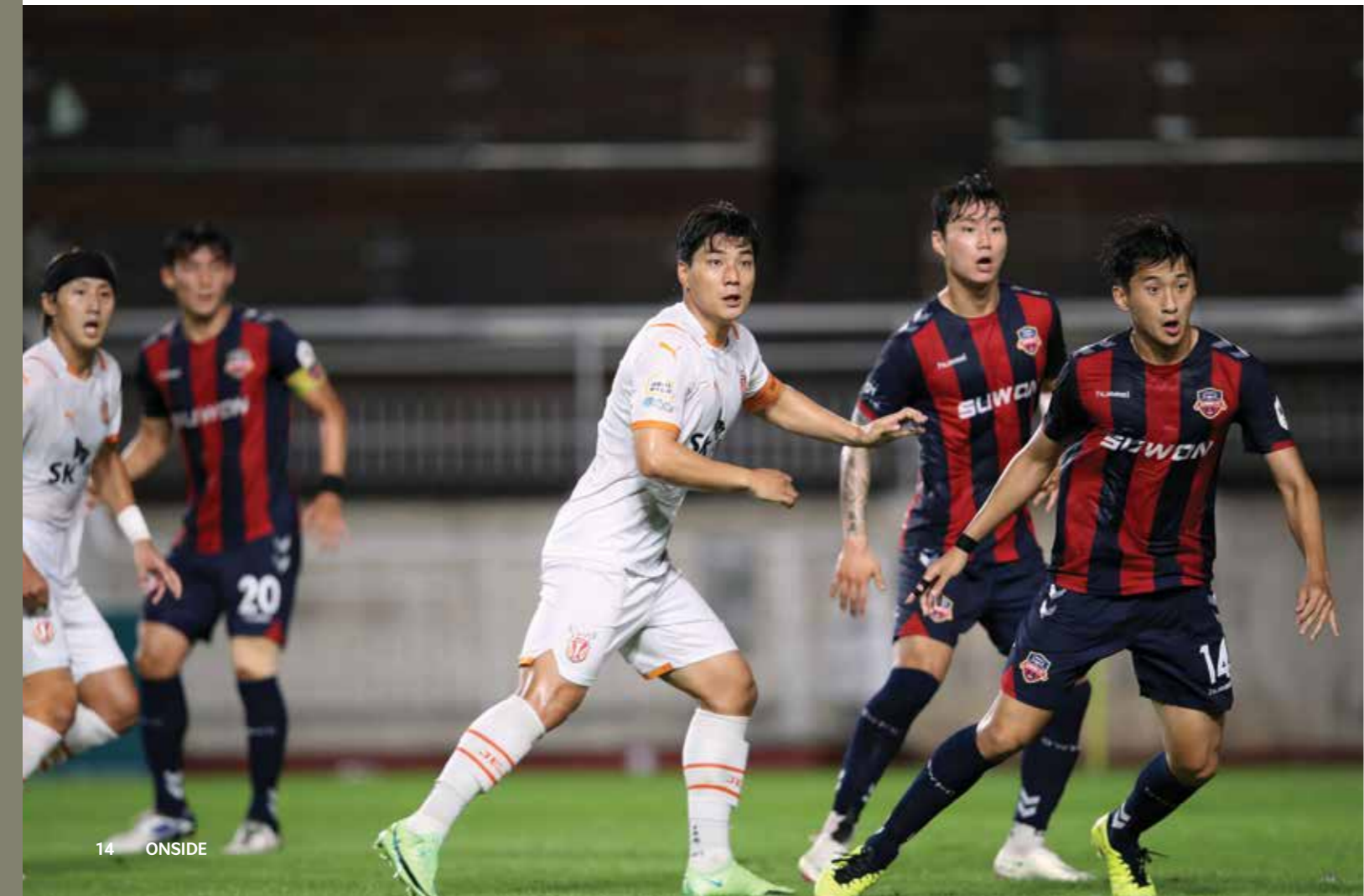
후반에는 공격진에 양동현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4-3-3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서도 미드필드 가운데에 선 김건웅의 역할이 중요했다. 공격 시에 빌드업에 관여하는 것 외에도 수비 시에 1차적으로는 미드필드 진영에서 4백을 보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내려서서 5백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김건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이 수원FC의 전술 변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김건웅의 움직임 외에도 수원FC는 상황에 따라 시도한 변화가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무릴로가 부상으로 이른 시간 교체됐지만 대신 들어온 한승규가 역할을 잘 해냈다. 양동현도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찬스를 만들었다. 원래 포지션이 센터백인 조유민은 완전히 새로운 포지션인 윙백으로 깜짝 기용됐는데도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전술이나 선수 기용에서 감독이 과감한 변화를 줬을 때 선수들이 이를 100%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수원FC의 선수단, 감독, 코칭스태프의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보이고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선수들이 편하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수원FC가 시즌 초반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때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최근 완전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ON**

철저했던 제주의 준비, 전술 변화로 대응한 수원FC



	VS	
수원FC 3-5-2		제주유나이티드 3-4-3
<p>경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6라운드</p> <p>일시 2021년 8월 21일</p> <p>장소 수원월드컵경기장</p> <p>결과 수원FC 1-0 제주유나이티드</p> <p>득점 라스(후21 PK, 수원FC)</p>		



‘압도적 피지컬, 장기는 치달’ 울산과학대 고유나를 주목하라

여자축구 국제무대에서 매년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피지컬. 한국 여자축구의 인구 부족 문제와 단단히 결부된 이 약점이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으나, 오늘도 그라운드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 선수들로부터 희망을 얻는다. 180cm 장신 공격수 고유나는 얇은 저변 속 보물 같은 존재다.

“우리 여자축구에서 이런 피지컬의 선수는 없죠.”

울산과학대 강성민 감독은 고유나의 밝은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180cm 장신인 고유나는 멀리서 경기를 볼 때도 머리가 꺾충 솟아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한다. 여자 국가대표팀 공격수들의 신장이 보통 167~168cm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독보적으로 큰 키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00m를 12~13초대에 주파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다.

어려서부터 큰 키 덕에 당연하게도 최전방 원톱 공격수를 맡아왔던 고유나는 올해 울산과학대에 입학한 뒤 원톱으로서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강점인 빠른 스피드를 맘껏 활용할 수 있는 측면 공간에서 고유나는 자신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강성민 감독은 “힘과 스피드 면에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세밀함만 조금 더 갖춰나간다면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며 고유나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샀다.

울산과학대 운동장에서 만난 고유나는 등직한

체격에 아직 옛된 얼굴과 상큼한 미소를 장착한 스무살 청년이었다. 인터뷰가 처음이라는 그는 자신이 왜 표지 모델로 선정됐는지부터 모르겠다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숨길 수 없는 축구에 대한 애정부터 이제 갓 성인 무대에 돌입한 선수로서의 고민까지, 고유나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대학생이 돼서 첫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른 팀보다 훈련량이 많은 편이라 조금 힘들지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원톱으로 많이 뛰면서 혼자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대학교에 와서는 수비하는 법이나 패스 플레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있어요.

포지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원톱 역할을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투톱으로 배치되거나 측면에서 원어로 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팀 스타일 자체가 패스 플레이를 중요시하다 보니, 주고 나가는 움직임이라든지 다른 선수들과 협력하는 플레이를 많이 연습해요.

자신 있는 플레이는 어떤 건가요?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발밑으로 바로 공을 받는 것보다는 스피드를 살려서 공간으로 가는 패스를 받는 걸 좋아해요.

키가 굉장히 큰데도 달리기 빠르군요. 물리치(성남FC, 203cm)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생각보다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치고 달리는 이른바 ‘치달’ 스타일인데 그런 모습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아요. 저도 물리치 선수 경기를 본적이 있는데 진짜 빨라서 놀랐어요. 보통 키가 크면 둔하고 느리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어요.

맞아요. 대학교에 와서 원어를 자주 맡고 있어요. 감독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저도 측면에서 뭘 때 더 자신감이 생겨요. 측면 공간을 활용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치고 달리는 거나 1대1 등 더 다양한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선수도 원어인 이동준(울산현대) 선수예요. 키는 작은 편인데 정말 빠르고 득점력도 뛰어나요. 자신감도 대단하고요. 본받고 싶은 선수예요.



“
 ‘키 큰 선수, 피지컬 좋은 선수다. 그런데 되게 빠르네?’
 이렇게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울산과학대 고유나



키는 언제부터 그렇게 컸나요?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웃음)?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였대요. 4kg으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하면서 키가 큰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68cm.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키가 자랐어요. 엄마, 아빠, 오빠 모두 키가 큰 편이긴 한데 제가 유독 더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볼 때마다 더 큰 것 같대요. 이제 그만 커도 될 것 같아요(웃음).

축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3~4학년 때 오빠를 따라 방과후 활동으로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인천에 있는 백학초에서 여자축구부를 창단할 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죠. 그래서 백학초로 전학을 가서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하게 됐어요.

워낙 체격이 좋다보니 다른 종목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농구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고민하다가 축구를 선택했어요. 축구가 더 좋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손으로 하는 운동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축구를 선택한 게 잘한 일이죠(웃음).

큰 키는 누가 봐도 고유나 선수의 강점인데요. 그런 시선이 부담이 될 때도 있나요?

네, 있어요. 사실 제가 헤더 능력이 부족해요. 키가 크면 보통 헤더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왜 헤더를 못하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헤더 노이로제가 올 것 같아요(웃음). 몸싸움도 그래요. 몸싸움에서 밀리면 왜 더 작은 선수한테 밀리냐는 소리를 듣죠. 아, 너무 어려워요!

고유나 선수가 자신 있는 것은 스피드와 슈팅인데 큰 키 때문에 다른 부족한 부분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고민이군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것들을 더 살리고 싶지만 지도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



안양부흥중 시절의 고유나(6번). 그는 언제나 또래보다 키가 컸다.

씀들도 이해가 가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려는 거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큰 키를 가진 여자축구선수는 그만큼 드무니까요. 180cm 이상은 박은선(서울시청) 선수 이후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박은선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초에 제주도에서 동계훈련을 할 때 서울시청 언니들이랑 연습경기를 했거든요. 박은선 선수가 먼저 저한테 키 크다면서 키 재보자고 하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박은선 선수를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저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던 걸요!

PROFILE

생년월일 : 2002년 11월 16일
 신체조건 : 180cm
 포지션 : 공격수
 주요 경력
 백학초 - 안양부흥중 - 삼례여중 - 현대고 - 울산과학대

고유나 선수도 박은선 선수처럼 국가대표로서 월드컵과 같은 국제무대에 서면 좋겠어요.

네. 월드컵에 나가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생각만 해도 두근거려요. 남자축구는 늘 관심이 많지만 여자축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월드컵이라면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게 될 테니 그 점이 가장 기대돼요. 그런 경기를 뛰어본 경

험이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 무대에서 골을 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게 꿈인가 싶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대회에 나가서 골을 넣으면 신기해요. 내가 골을(웃음)? 골은 당연한 게 없어요. 골 넣을 때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더 큰 무대에서 골을 넣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안돼요.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어떤 선수로 축구팬들에게 인식되고 싶는지 알려주세요.

대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WK리그 드래프트에 지원해서 좋은 팀에 들어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하고 싶어요. 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 지소연(첼시FC위민) 선수 같은 분들을 보면 절로 꿈이 생겨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축구팬들이 저를 처음 인식할 때는 아마도 키 큰 선수, 피지컬 좋은 선수 정도일 텐데, 그런데 되게 빠르네? 이렇게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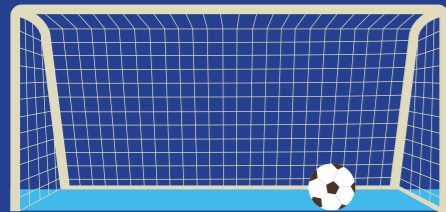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알맞은 토양과 햇볕, 적절한 비와 바람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잎이 자란다. 대구동구멋진축구단의 성장은 여자축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대구동구 멋진축구단,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2002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여성축구단 창단이 줄을 이었다. 한일 월드컵을 앞둔 축구 붐 조성의 일환으로, 정책적 지원 속에 각 지자체 소속의 여성축구단이 창단된 것이다. 그간 축구와 동떨어져있던 여성들, 특히 중년 여성들의 생활 속에 축구가 스며들기 시작한 때다. 그러나 반짝 붐에 그치지 않는 여성축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체계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대회 참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무엇보다 꾸준한 선수 수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동구멋진축구단(이하 멋진축구단) 역시 한일월드컵을 앞둔 축구 열기 속에 2001년 12월 창단됐다. 대구동구청 소속의 여성축구단이다. 초창기에는 우선 은퇴한 운동선수들을 끌어 모았다. 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은 상관없었다. 은퇴 후 주부로 생활하고 있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축구선수 자녀를 둔 어머니,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급식사 등 다양한 사연이 그들을 축구로 이끌었다.

박동선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부회장은 멋진축구단의 창단을 함께한 멋진축구단 역사의 산증인이다. 10년 전부터는 멋진축구단의 단장으로 부임해 굵은일을 도맡고 있다. 20년째 지역 여자축구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그림을 그리듯 추억의 한 장면을 묘사했다.



Team 'HER' story

“골키퍼 김정미 선수가 영진전문대에 갓 입학했을 때예요. 학교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나면 금호강 건너편에 있는 운동장에 와요. 거기는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들이 축구하는 데거든요. 동네축구요. 거기에 와서 자기가 골키퍼 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같이 훈련하고... 날이 갈수록 해질 때까지 운동을 해요. 그렇게 연습벌레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했겠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정미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박동선 단장이 여자축구에 애정을 쏟게 했다. 덕분에 김정미가 대학생이었던 2003년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현재까지도 최고의 골키퍼로 손꼽히듯이, 멋진축구단 또한 그 시간동안 맥을 이어가고 있다. 박동선 단장은 영진전문대 여자축구부가 해체한 뒤 대학 여자축구부 창단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

“영진전문대 여자축구부가 해체한 것은 대구 지역 여자축구 활성화에는 물론이고 여자축구 전체로서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진로 개발을 위해 대학 여자축구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남이공대가 내년 신설하는 스포츠재활 운동관리학과 함께 여자축구부 발족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선수 확보 등 어려움이 많지만 내년 창단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선 단장은 여성축구단의 창단과 존속에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남자축구에 비해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여자축구는 아직 자발적인 팀 창단보다는 각 지역 지자체나 시도체육회, 시도 축구협회의 주도로 팀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단계다. 때문에 유관 기관의 의지에 따라 팀 운영 상태나 지속가능성이 달라진다. 멋진축구단의 경우에는 대구동구청을 비롯해 대구광역시동구체육회, 대구광역시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님이 워낙 열성적이세요. 동구청 주관으로 여성동호인 전국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구 단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건 최초일 거예요. 사실 지난해에 준비를 마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올해 10월 말, 11월 초쯤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뜻 깊은 일이 될 겁니다.”

멋진축구단이라는 멋진 이름에도 배기철 동구청장의 영향이 있었다. 멋진축구단은 원래 동구여성축구단(창단 당시에는 동구팔공여성축구단)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 배기철 동구청장 부임 이후 생긴 동구의 슬로건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따라 멋진여성축구단이 됐다. 이어 굳이 ‘여성’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 멋진축구단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느 전국대회에 나가도 풀리지 않을 이름이다.

“엘리트 팀 못지않게 프로페셔널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훈련도 체계적이지만 그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훈련에 임하는 태도,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필드하기, 태권도 등 이전에 다른 종목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면 ‘동호인 팀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팀 사람들은 모두 그런 열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합이 잘되죠.”

정성은




“동구와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죠.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정성은의 말이다. WK리그에서 활약했던 정성은은 2017년부터 멋진축구단과 함께 하고 있다. 부상으로 이른 은퇴를 한 뒤 다시는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지만, 동호인으로서 경기를 뛰고 전문 선수 출신이 아닌 다른 동료들을 지도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는 멋진축구단이 다른 동호인 팀과 비교해 보다 엘리트 팀을 닮아있다고 설명했다. 멋진축구단은 탄탄한 지원 속에 오랜 시간 명맥을 유지해온 만큼 동호인축구 이상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랑한다.

“엘리트 팀 못지않게 프로페셔널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훈련도 체계적이지만 그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훈련에 임하는 태도,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필드하기, 태권도 등 이전에 다른 종목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면 ‘동호인 팀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팀 사람들은 모두 그런 열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합이 잘되죠.”

멋진축구단은 일주일에 세 번씩 대구 동구에 위치한 박주영축구장에서 훈련을 갖는다.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멋진축구단은 발전을 거듭했다.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70대 남자 동호인 팀과 연습경기를 치로곤 했던 멋진축구단은 이제 50~60대 남자 동호인 팀과의 맞대결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덩고 습한 대구의 날씨는 멋진축구단의 축구 열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멋진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규식 감독의 부임은 또 하나의 발돋움이다. 지난해까지 명예직이었던 감독 자리에 베테랑 여자축구 지도자인 김규식 감독이 앉은 것이다. 김규식 감독은 대구동부고 여자축구부에서 창단부터 16년간 팀을 이끌었고, 이후 제주국제대 여자축구부와 대구WFC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박동선 단장이 적극 섭외한 끝에 올해부터 멋진축구단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전국구 여성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멋진축구단은 소위 ‘선출(전문 선수 출신)’이 많은 수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출 멤버 영입 외에도 비-선출 멤버의 기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정성은은 여자축구의 경우 남자축구보다 선출과 비-선출의 기량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감독의 부임은 그 차이를 줄이고 팀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동선 단장은 2017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 탄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꿀 날을 기다리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있다. 



‘한국형’ 홈그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서류 속 국적에 막힌 코리안 드림

2021시즌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축구팬들 사이에서 한 신인 선수가 화제가 됐다. 바로 포항스틸러스에 입단한 중앙 수비수 풍기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6살 때 난민 신분으로 앙골라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택 지역의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공을 차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는 경기청담FCU18에서 주장도 맡는 등 좋은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여름 이적시장 추가등록 기간까지 끝난 지금도 사무엘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포항의 선수가 아니다.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아서 연습생 신분으로 팀 훈련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귀화 시험 및 절차가 계속 연기되면서 사무엘의 K리그 선수 등록 전제 조건이던 한국 국적 취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도 있었다. 네팔 출신의 당기 머니스는 14세에 한국으로 와 경기신흥중과 경기포천시민축구단 U-18에서 공을 차며 고등학교 권역 득점왕에도 오르는 등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한 K리그 팀의 입단 테스트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머니스도 국적 문제로 인해 선수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고 끝내 프로 입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사무엘과 머니스 같은 선수들은 잠재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국축구 무대를 뛰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고교 무대에서 ‘동두천 음바페’라 불리며 주목받는 데니스 오세이(경기계명고) 등의 다른 이주민 선수들 역시 사무엘과 머니스가 겪은 것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민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소년 축구 현장에서도 피부색이 다른 선수가 능숙한 한국어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다르게 한국축구는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홈그로운’ 규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 시스템이 키운 선수는 우리 선수다

축구 선진국 유럽에서는 홈그로운 제도를 일찌감치 활용하고 있다. 유럽축구는 1995년 도입된 보스만 룰과 TV 중계권료의 비약적 상승으로 인해 클럽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자 클럽들이 좋은 선수를 수집해 국내외 대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일은 등한시됐다.

이에 유럽축구연맹(UEFA)은 유소년 선수 육성을 장려하고자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UEFA는 2008-2009 시즌부터 UEFA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 참여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1군 로스터 25명 안에 최소 8명의 홈그로운 선수를 등록하도록 했다. UEFA는 15세에서 21세 사이에 해당 축구협회 소속 클럽에서 3년 이상 뒀던 선수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홈그로운 선수 자격을 부여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홈그로운 제도의 당초 도입 의도는 유소년 선수 육성 장려다. 하지만 여기에는 ‘선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우리 땅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자란 선수는 우리 선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국형’ 홈그로운 제도 도입 논의는 바로 이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K리그는 구단 별로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국적과 상관없이 3명을 보유할 수 있고, AFC 가맹국 선수 1명과 ASEAN 가맹국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K리그는 지난 시즌부터 ASEAN 가맹국 1명을 보유할 수 있는 ‘아세안 쿼터’를 도입, 동남아시아 선수 활용을 통한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사무엘과 머니스 같은 선수는 지금과 같은 외국인 쿼터에서는 기회를 받기 어렵다. 두 선수는 모두 한국과 한국축구의 시스템에서 축구선수로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인의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이다. 성인 무대에 등록될 때 외국인 선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프로 구단의 입장에서 즉시 전력감을 사용해야 할 외국인 쿼터 한 자리를 이들 같은 신인 선수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축구는 가장 세계적인 스포츠이고, 한국 사회와 한국축구도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한국축구의 시스템이 이미 키워냈고, 앞으로 키워낼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을 한국축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홈그로운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ON**

피지컬 코치,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포항스틸러스의 주닝요 피지컬 코치

감독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피지컬 코치의 조언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의 감독들은 선수의 부상 방지 및 재활 뿐만 아니라 팀 훈련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피지컬 코치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다.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신뢰한다

이번 시즌 K3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천안시축구단의 김태영 감독은 피지컬 코치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안시축구단은 지난 시즌까지는 피지컬 코치가 없었으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서영균 피지컬 코치가 팀에 합류했다.

김 감독은 “피지컬 코치의 훈련이 선수들의 경기 컨디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준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의 컨디션, 근력 등을 비롯한 신체적인 부분의 훈련들은 모두 서영균 피지컬 코치가 맡는다”며 “서 코치의 조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훈련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과는 달리 구단 자체 연습경기를 치를 때 선수들의 피로도에 따라 경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교체 투입 결정에도 피지컬 코치의 조언을 반영했다. 그는 “애초에 선수들에게 ‘나는



경주한수원 여자축구단의 최준혁 피지컬 코치

피지컬 코치로부터 워업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교체 선수를 고르겠다'고 말해줬다. 실제로 경기 중에 피지컬 코치가 경기 중 워업에서 어떤 선수의 몸 상태가 좋은지 다른 코치들에게 전달하면 나도 그 내용을 듣고 이를 고려해 선수 교체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코칭스태프들의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강조하는 WK리그 경주한수원의 송주희 감독도 김태영 감독과 마찬가지로 피지컬 코치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송 감독은 "우리 팀의 최준혁 피지컬 코치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첫 째는 신체적인 훈련과 컨디션 관리를 통해 선수들의 체력과 근력을 경기에 맞춰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훈련 외적인 선수들의 몸 상태 체크, 이에 따른

영양섭취에 대한 조언까지도 맡는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후 휴식을 가지거나 휴식기를 보낸 뒤 첫날 훈련에는 무조건 컨디션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날 훈련은 대부분 최 코치에게 일임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연습경기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피지컬 코치의 컨디션 체크와 조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결정들을 감독이 감에 따라 내릴 수도 있지만, 전문 지식을 가진 스태프의 피드백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피지컬 코치의 전문지식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은 K리그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포항스틸러스의 김기동 감독은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와 브라질 유학파인 박효준 코치까지 두 명의 피지컬 코치를 활용하고 있다.

김 감독은 "현장 경험은 감독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생리학 등 선수들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피지컬 코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지식을 신뢰한다. 감독이 모든 것을 짚어지고 갈 수는 없다"며 "훈련의 강도와 시간을 정하고 선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부하를 줄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은 피지컬 코치의 데이터와 지식"이라고 말했다.

피지컬 코치의 활용은 경기장 안에서의 성과로 이어졌다. 김기동 감독은 "지난 시즌 상승세를 달릴 때 부상 선수도 적었고, 부상 선수의 재활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의무 트레이너의 역할이 치료실에서 통증을 줄이고 운동이 가능한 몸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라면 이후 근력을 키우고 경기를 뒀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피지컬 코치의 몫이다. 특히 주닝요 코치는 원정 경기를 앞두고도 부상선수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팀과 별개로 움직이면서 선수들의 회복 훈련을 마치고 따로 팀에 합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감독도 부상 선수 재활 과정에서의 기여도에서 피지컬 코치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김태영 감독은 "의무 트레이너들도 선수의 부상 회복과 재활에 기여하지만 치료 이후 재활 훈련을 통해 빠르게 선수를 그라운드에 복귀시키는 데는 피지컬 코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피지컬 코치가 없었던 지난 시즌과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부상 선수의 재활 훈련을 통한 빠른 회복이다. 이번 시즌 좋은 성적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주희 감독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외에도 훈련장 안에서 드러나는 선수들의 변화에 주목했다. 송주희 감독은 "피지컬 코치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선수들의 이해력과 집중력이 확실히 올라간다. 비유하자면 똑같이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의 강연을 들을 때 집중력이 다른 일반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과 같다. 같은 훈련을 해도 선수들이 이 훈련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해하고 훈련에 임한다. 이러한 몰입도 높은 훈련의 성과는 곧 경기장 안에서의 퍼포먼스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 감독의 감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지식을 가진 스태프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

송주희 경주한수원 감독

”

피지컬 관리,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

피지컬 코치의 활용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은 성인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소년 레벨에서도 피지컬 코치의 존재는 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올해 대한축구협회장배에서 준우승,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주영생고(전북현대 U-18) 팀도 피지컬 코치의 역할이 컸다.

안대현 전주영생고 감독은 유소년 레벨에서 피지컬 코치의 효과가 더 크고 필요성도 높다고 이야기했다. 안대현 감독은 "현재 팀에서 선수들의 전술적이거나 기술적인 훈련 외에 체력적인 부분은 전부 피지컬 코치에 맡기고 있다. 이번 왕중왕전을 앞두고는 연말아 대회를 치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조절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지컬 코치의 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다. 예전처럼 지도자의 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감독은 "어린 선수들일수록 지도자의 욕심으로 훈련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유소년 선수들은 신체적으로나 기량으로 나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훈련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때 팀에 피지컬 코치가 있으면 전문 지식에 따라 선수들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성적보다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서 피지컬 코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동 감독이 피지컬 코치 두 명을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포항에서 두 피지컬 코치의 역할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주닝요 코치는 1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집중한다. 박효준 코치는 1군에서 주닝요 코치를 보조할 때도 있지만 주업무는 2군에서 어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피지컬 훈련을 전담하는 것이다.

김기동 감독은 "사실 이미 기량과 성장이 완성된 선수들보다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 선수들에게 피지컬 관리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팀 차원에서 당장 눈앞의 성적에 집중하다 보면 어린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도 방치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팀이 두 명의 피지컬 코치를 활용해 어린 선수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미하엘 뮐러 강사에게 물어보세요.

2018년 4월부터 KFA와 함께하고 있는 미하엘 뮐러 강사는 독일에서 20년 간 활동한 유·청소년 축구 전문가이자 지도자강사다. 초보 지도자들의 궁금증을 모아 그에게 물었다.



Q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게임 모델(game model), 게임 콘셉트(game concept), 게임 플랜(game plan)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주섭 지도자)

요즘에는 매우 다양한 축구 관련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축구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리책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유효한 개념과 정의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도자와 팀은 본인만의 목적을 위한 본인만의 축구 용어, 축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면 됩니다.

- 1 The Game Vision (게임 비전) - Goal Level (목적 단계)
- 2 The Playing Style (플레이 스타일) - Content Level (내용 단계)
- 3 The Basic Conception (기본 구상) - Imparting Level (전달 단계)

위와 같이 저는 질문해주시는 용어들과 다소 다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있어서 질문해주시는 용어들은 코칭방법론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축구를 "어떻게" 하느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번 게임 비전은 목적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바라는 점을 의

미합니다. 이 목적 단계는 어느 특정 포메이션과 무관하게 사용되며 항상 유효합니다. 게임 비전은 향후 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며 미래 지향적인 이상향입니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기준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2번 플레이 스타일은 내용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용 단계 또한 팀의 포메이션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내용 단계는 경기의 모든 국면에서 구현되는 습관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공격과 수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달라지며, 그 내용은 팀/그룹/개인 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3번 기본 구상은 전달 단계입니다. 전달 단계에서는 하나의 각 경기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서 팀의 기본 포메이션을 정하고 팀의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합니다. 지도자는 팀의 수준에 맞게 성공적인 경기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선수들에게 전달합니다.

질문해 주신 용어에 비춰보면 게임 모델(game model)이 2번 플레이 스타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콘셉트(game concept)와 게임 플랜(game plan)을 저는 3번 기본 구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 1번 게임 비전이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ON**



양말이 닳도록

소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지만 유독 90분 내내 발이 닳도록 뛰는 선수가 있지.



금민
박지성 선수가 생각나네?



소담
그렇게 많이 뛰는 선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금민
힌트를 줄게. 양말과 관련이 있어.



소담
양말? socks? 어려운데.



축구만큼 글로벌(global : 세계적인)한 스포츠는 없다. 축구를 통해 배우는 영어회화로 글로벌한 축구인이 돼보자. <한 권으로 읽는 축구영어>에서 유용한 표현을 엄선했다.

'양말이 닳도록 일하다' work one's socks off 또는 '양말이 닳도록 뛰어다니다' run one's socks off는 주로 활동량이 많은 팀이나 선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축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열심히 일하다'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

비슷하게 선수의 왕성한 활동량을 묘사하는 말로 '(경기장의) 모든 잔디 잎사귀를 담당하다' cover every blade of grass 라는 재미난 표현도 있다. 선수의 넓은 활동반경을 칭찬하는 표현이다. **ON**



예문 01 Jisung PARK worked his socks off all game. 박지성은 경기 내내 열심히 뛰어다녔다.

예문 02 The midfielder covered every blade of grass on the pitch,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both attack and defence. 그 미드필더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 큰 공헌을 했다.

영원히 퇴장당하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축구 인생은 없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승부
조작

금품
수수

폭력
폭언



대한축구협회 KFA 신문고센터

· 사이트 : www.kfa.or.kr

스포츠 윤리센터

· 사이트 : www.k-sec.or.kr · 전화 : 1670-2876

